

트레비스 “후반기 첫 먹잇감은 삼성”

주간 프로야구 전망대



주중 3연전 첫승 임무...장원삼과 좌완 맞대결
 화력강화 넥센엔 최희섭 거포본능 발동 기대

호랑이 군단이 안방에서 1위 독주체제를 준비한다.
 올스타브레이크를 끝낸 프로야구가 26일 후반기 순위 레이스에 돌입한다. 22일 하루 휴식을 취한 뒤 훈련을 이어온 KIA 타이거즈는 후반기 일정을 홈 6연전으로 시작한다.
 홈에서 만나게 되는 상대는 물고 물리는 싸움을 펼치고 있는 2위 삼성과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넥센이다.
 박빙의 승률 싸움이 전개되던 전반기 마지막 3연전, KIA는 한화를 상대로 워닝 시리즈를 가져오며 1위를 지킨 반면 삼성은 SK에게 2승을 내주면서 두 팀의 게임차는 2경기까지 벌어졌다. 삼성과의 주중 3연전 결과에 따라 KIA는 일찌감치 독주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KIA의 후반기 첫 승의 임무는 외국인 투

수 트레비스가 맡았다. 삼성에서는 장원삼이 출격을 준비하면서 좌완 맞대결이 펼쳐지게 됐다.
 후반기 스타트를 끊는 트레비스는 8승을 위한 3전4기에 나선다. 트레비스는 최근 3차례 등판에서 2.28의 방어율을 기록하는 등 호투를 했지만 볼펜의 난조와 야수진의 실책이 겹치면서 승리투수가 되지 못했다.
 주중 삼성과 마운드 대결을 벌이게 되는 KIA는 주말 넥센과는 방향이 싸움을 펼칠 전망이다.
 올 시즌 상대 전적에서 KIA가 9승3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부진했던 넥센의 방향이 알드리지와 강정호의 상승세 속에 꿈틀거리고 있어 화력전을 예고하고 있다.
 KIA의 화력의 중심에는 최희섭이 있다. 부상과 부진으로 4번 타자의 역할을 수

■ 2011 프로야구 중간순위 (7월 25일 현재)

팀	경기수	승	패	무	승률	게임차	연속
1 KIA	87	52	35	0	0.598	-	2승
2 삼성	81	46	33	2	0.582	2.0	2패
3 SK	76	42	34	0	0.553	4.5	2승
4 LG	82	41	41	0	0.500	8.5	3패
5 롯데	82	38	41	3	0.481	10.0	1패
6 두산	77	34	41	2	0.453	12.0	1승
7 한화	84	36	47	1	0.434	14.0	2패
8 넥센	77	30	47	0	0.390	17.0	4승

행하지 못했던 최희섭은 지난 17일 삼성과의 경기를 통해 복귀전을 치렀다. 이후 4경기에서 13타수 5안타 0.385의 타율을 기록했고, 시원한 한방까지 선보이며 4타점을 올렸다.

‘타점 머신’ 이범호는 기록 행진을 준비하고 있다. 600타점에 하나가 부족한 이범호는 17개의 득점을 추가하면 600득점도 채우게 된다. 안타 10개를 때려내면 7년 연속 세타점 안타의 위업을 달성하게 된다.

베테랑의 기록 도전도 끝나지 않았다. 이종범은 후반기 29차례 엔트리에 이름을 올리면 1700경기 출장을 기록하게 된다. 600타수에는 40개가 남았고, 앞으로 11번



트레비스 최희섭

홈을 밟으면 1100득점도 완성된다.

절치부심 후반기를 준비한 투수 양현종은 4승을 올리면 팀 역사상 처음으로 좌완 3년 연속 두자릿수 승의 주인공이 된다.

지난 8일 500승을 달성한 조병현 감독은 전반기까지 998경기를 소화하면서 1000경기 출장을 앞두고 있다.

또 KIA는 2승을 추가하면 통산 두 번째로 1900승 고지를 밟게 된다. 팀 통산 4번째 800세이브에는 11개가 부족하다.

/김어물기자 wool@kwangju.co.kr



프로야구 30년 타이거즈 30년

<33> 1997년 꿈같은 'V9'

1997시즌 해태 타이거즈의 화두는 ‘호랑이 털갈이’였다.

모기업의 재정난 속에서도 주전이 아닌 신예들로만 해외전지훈련을 실시하며 ‘물갈이’를 피했다.

임창용·김중국·김상진·장성호·이호준·김창희·박진철·오철민 등이 대만과 하와이 캠프를 통해 한 단계 레벨 업 되는 효과를 보였다. 앞선 시즌 종료 후 LG 트윈스와 트레이드를 통해 최항

남·송유석·동봉철을 내주고 최훈재·조현을 영입하며 타선을 보강하기도 했다. 해태는 선동열과 김정수의 공백을 메

고, 최중전서 ‘위장오더’까지 내며 총력전을 펼친 끝에 심재학의 맹타와 이상훈의 끝판왕 마무리로 승리를 챙기며 3승2패의 성적으로 한국시리즈에 진출했다.

1997시즌 한국시리즈는 페넨트레이스 1위 해태 대 LG 간의 ‘여건인 1983’의 리턴 매치로 치러졌다.

한국시리즈 1차전은 해태가 이대진과 임창용의 완벽투와 장성호의 3안타2타점 맹타로 6-1로 승리했다. 2차전은 해태가 심재학에게 3안타4타점을 허용하는 등 두 팀이네에만 10실점하며 1-10으로 대패했다.

모기업 재정난 속 신예들로 ‘호랑이 털갈이’

‘비운의 영건’ 김상진 마지막 역투 LG 꺾어

올 새로운 마무리로 ‘핵심수함’ 임창용을, 타력에서는 이순철의 공백을 메울 공격의 첨병으로 루키 김창희, 김성현의 공백에는 최훈재에게 큰 기대를 걸었다. 거기에 완속미를 더해가는 이강철·이대진·이종범·이호성·홍현우·박재용·최해식·백인호 등이 팀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신예들의 선전만 있다면 V9도 가능하다는 평가 속에 시즌을 시작했다.

해태는 시즌 개막과 더불어 포효하며 시즌 내내 상위권을 유지했다. 유일한 결집돌인 팀 10연승 신기록의 저력을 보인 LG의 맹렬한 추격을 뿌리치고 7월17일 단독 선두로 나선 뒤에는 시즌 종료 때까지 단 한 차례도 선두 자리를 내주지 않고 1위로 페넨트레이스를 마쳤다.

준플레이오프전에서 4위 삼성 라이온즈가 3위 쌍방울 레이더스와 두 차례나 한 점차 승부를 펼치는 접전 끝에 2승1패로 신승을 거두고 플레이오프전에 진출했다.

플레이오프전에서는 2위인 LG가 추격자인 삼성에게 2연승 후 2연패로 물렀

3차전은 조계현과 임창용의 역투와 ‘야구 천재’ 이종범의 동점과 역전으로 이어지는 연타석홈런으로 최고의 마무리 이상훈을 무너뜨리고 5-1로 승리했다. 해태는 4차전에서 이대진과 임창용 커플의 철벽 마운드와 친정팀을 상대로 한 최훈재의 분풀이 불꽃 타격으로 7-4로 LG를 제압했다.

그리고 고별전이 된 5차전에서는 ‘비운의 영건’ 김상진의 완투 역투속에 홍현우·최해식의 맹타와 이종범의 신기 같은 수비가 이어지면서 해태가 6-1로 승리했다.

LG는 1983년 MBC 청룡으로 해태에 당했던 4연패(1무)의 숙원을 풀고자했으나, 1승만을 간신히 건지며 V9의 제물이 되고 말았다.



김재요
 <조선이공대 교수·한국야구기록연구회장>



금메달 박태환 ‘돈방석’

세계선수권 자유형 400m 금 포상금 1억5000만원 확보

박태환(22·단국대)이 중국 상하이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자유형 400m 금메달을 따면서 덩어리 돈방석에 앉게 됐다.

25일 박태환 전담팀을 운영하는 SK텔레콤 스포츠단에 따르면 박태환은 2009년 로마 세계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세계선수권대회와 2012년 올림픽 성적에 따른 포상금으로 금메달 1억5000만원, 은메달 8000만원, 동메달 5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기로 계약했다.

이는 SK텔레콤이 박태환 전담팀을 꾸리기 전인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제시했던 인센티브(금메달 1억원, 은메달 5000만원, 동메달 3000만원)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다.

박태환은 24일 상하이 대회 자유형 400m에서 우승함으로써 일단 1억5000만원을 챙기게 됐다. 또 메달을 딸 것으로 예상되는 200m와 100m 경기를 남겨 놓아 이번 대회를 통해 거둬들이는 총상금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박태환은 로마 대회에서는 자유형 200·400·1500m 세 종목에 출전했지만, 메달은 커녕 한 종목에서도 결승에 오르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3개, 은·동메달을 두 개씩 목에 걸어 이를 만회했다.

SK텔레콤은 아시안게임 포상금으로 개인 종목의 경우 금메달 7000만원, 은메달 5000만원, 동메달 3000만원을 준다. 단체전 메달 포상금으로는 개인 종목의 50%를 책정해 놓고 있다. 아시아 신기록에 대해서는 5000만원의 포상금을 더 얹어 준다.

박태환은 광주 아시안게임에서 SK텔레콤에서만 3억6500만원을 받았다. 수영복 브랜드 스피드에서 2억5000만원, 대한수영연맹에서도 3600만원이 나왔다.

한편 SK텔레콤은 박태환의 연봉과 전담팀 운영비 및 인건비, 전담 지도자인 마이클 불(호주) 코치의 연봉 등으로 연간 20억 원 가량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도로 사이클 막판 스퍼트

프랑스 도로일주 사이클대회인 제98회 투르드프랑스의 대장정에 참가한 선수들이 프랑스 크레테일에 서 파리 샹젤리제까지 이어진 마지막 95km 구간을 달리고 있다. 23일간 이어진 울해 대회는 카멜 에반스(호주)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연합뉴스

F1 독일 그랑프리

해밀턴 우승

루이스 해밀턴(영국·맥라렌)이 F1(포뮬러) 국제자동차경주대회 독일 그랑프리에서 우승했다.

해밀턴은 24일 독일 니르부르크링에서 열린 ‘2011 포뮬러 월드챔피언십’ 10라운드에서 5.148km의 서킷 60바퀴(총길이 308.863km)를 1시간37분30초334에 달려 가장 먼저 체커기를 받았다. 지난 4월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시즌 3라운드에서 우승을 차지한 뒤 두번째다. 페르난도 알론소(스페인·페라리)가 뒤를 이었다.

앞서 열린 9차례 레이스에서 우승 6회, 준우승 3회를 기록한 제바스티안 페텔은 4위에 머물러 올 들어 처음으로 시상대에 오르지 못했다. 해밀턴은 드라이버 부문에서 랭킹 포인트 134점이 돼 3위에 올랐다.

/김지우기자 dok2000@kwangju.co.kr

프로야구 경제효과 1조2000억

4대 프로리그중 최고

국내에서 경제적 파급 효과가 가장 큰 프로스포츠는 야구로 나타났다. 프로야구가 국내 경제에 미친 파급 효과는 축구는 물론 농구와 배구를 합한 것보다 많았다.

25일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스포츠산업마케팅센터)에 의뢰해 조사한 ‘한국 4개 스포츠리그의 경제적 파급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4대 프로리그는 총 2조2387억원의 경제 효과와 2만1528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분석됐다.

올 시즌 650만 관중 돌파를 목표로 하는 프로야구는 전체적인 경제 파급 효과가 4대 프로리그의 52.9%에 해당하는 1조1838억원(생산 파급 효과 8018억원, 부가가치 파급 효과 38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축구는 경제 파급 효과가 7790억원으로 전체의 34.8%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아름다운 결혼의 시작 신양파크 호텔과 함께

Cool Wedding Event

웨딩/특전
 허니문룸 1박
 조식2인(웨딩 전일 또는 당일)
 온돌 폐백식 / 폐백용품제공
 아이스크빙 제공

웨딩 축하 케이크 제공
 꽃길 서비스
 특수 연출 서비스
 신양 허니문 카드 증정

Special Rate

뷔페 ₩29,000 / ₩33,000
양식 ₩33,000 (스프+샐러드+스테이크(안심)+디저트+커피)
 ₩35,000 (에피타이저+스프+샐러드+스테이크(안심)+디저트+커피)

이 세상 누구보다 아름다운 당신 눈부심과 설렘으로 다가오는 당신의 가장 소중한 순간을 위해 준비 했습니다.

기간 | 2011년 7월 1일 ~ 9월 30일 예약문의 : Tel. 062)228-4711~2 / 062)221-4101~3